

특집 : 1979년도 ICN-CNR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1979년도 국제 간호협의회

운영위원회(ICN-CNR) 참석보고



김 모 임
(본회 회장 보건학박사)

있다. 소련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창립 91주년을 올해로 맞고 72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여성UN이라고 불리는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보다 그 연륜은 짧아도 막강한 수의 회원국을 자랑하는 세계간호전문영역을 대표하는 국제기구의 면목을 갖추고 있음을 보았다.

회의는 본회가 24일~29일 5일간이고 의전 및 우호교류를 위한 날로 확정된 이틀을 보태면 7일간의 회의였다.

이 7일간의 회의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1979 9월23일 : Kenya국부인 Kenyatta 대통령 모소참배 및 합동예배

9월24일 오전 : 케냐 D.T. Arap Moi대통령에 의한 공식회의개회
대통령관저에서의 나과회

오후 : 회의

25일 오전 : 회의

오후 : 회의

저녁만찬회 브사부장관 초청

26일 오전 : 회의

ICN은 올해로 창설 80주년을 맞고 89개국의 회원국기록을 갖게 되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처음 갖는 CNR회의였다. 89개국의 회원국은 미국을 위시하여 영국등 자유진영 선진국가와 동구의 Poland와 yugoslavia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공산진영 국가들로 구성되어

- 오후 : 회의
- 27일 오전 : 회의
- 오후 : 회의
- 저녁 : 영화(일차건강관리에 관한 영화)
- 28일 오전 : 회의
- 오후 : 회의
- 저녁 : 영화(일차건강관리에 관한영화)
- 29일 오전 : 현장시찰
- 오후 : "
- 저녁 : 우호교류의 밤(케냐 간호협회초청)



분회 회장 김모임박사가 단상에서 발언하는 장면
(우로부터 스페인 제 2부회장<캐나다>, 버그만 제 1부회장<이스라엘>)

이 7일간의 회의 일정을 마치고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ICN과 WHO가 주관하는 일차건강관리와 간호원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국제 학술세미나에 계속해서 참석하였다. 지금은 ICN-CNR 참석보고인만큼 ICW참가기, 일차건강관리와 간호원의 역할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참석보고, 그리고 재미한인간호협회참가 보고는 지면이 허락되는대로 회원 여러분께 계속해서 보내 드릴것을 약속하면서 ICN-CNR 회의 일정에 따른 회의 및 활동보고로 국한한다.

개회식은 케냐가 자랑하는 명물인 Kenyatta Conference Center에 있는 8각형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작곡대표가 전원입장한후 케냐의 제 2대 대통령 D.T. Arap Moi가 입장하여 CNR회의를 공식으로 개최하고 개회에 즈음한 Moi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다. 이에 앞서 주최국인 케냐 간호협회 회장 Kier-eini로부터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첫번 CNR을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갖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간호원은 사회의 부분으로서 사회변천과 요구에 더

욱 민감하여야 한다고 하며 일차건강관리는 간호원의 큰 관심사라 하였다. 이어 국민건강관리를 위해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권한이 함께 주어져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제간호협의회 회장 Anstey는 케냐의 Moi대통령을 비롯 보사부장관과 다른 정부판리가 적극협조하여 거룩적인 반반의 준비를 해 줌을 감사하고 이런 정부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곧 케냐 건강관리에 있어 간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바라고 하며 케냐 간협의 활동을 치하하였다. 이어서 보사부장관 축사가 있었고, Moi 대통령이 질병으로 부서의 치료는 약으로만 되는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치유할수 있는 것이며 사랑없이 약으로만 치유할수 없으나 약없이 사랑으로 치유할수 있는 병이 많다고 하며 국민의 건강을 얻기 위하여는 간호원이 제공하는 사랑이 절대적이라고 하며, 농촌에는 간호원을 기다리는 주민이 많이 있음을 지적하고 간호학을 공

부하도록 많은 젊은이를 유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개회식 광경중 이색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개회식이 있기 전에 음악과 노래와 춤이 먼저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개회식이 2시간은 넘게 걸린다. 이 긴 시간을 일국의 대통령과 장관이 느긋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 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 아프리카 다운 개회식이 있은후 공식 회무처리에 들어 갔다. 회의 진행은 개회식 때와 판이하게 다른 분위기다. 오전 9시—오후 12시30분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계획된대로 Coffee break를 하고는 철사이 없이 회무처리가 진행되었다. 진행하는 방법이 형식과 절차가 빈틈없이 미리 마련된, 영국의사결정 방법을 배웠다. 발언은 임시 응변으로 하지 않는다. 발언할 사항을 발언지에 적고 그리고 천천히 정확히 읽을 것을 요청한다 이 발언지는 4개의 사본이 있어서 하나는 발언자, 하나는 사회자, 하나는 통역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서류철에 곧 철해지게 되어 있다.

즉 심사숙고하지 않은 발언은 있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법의 하나인 것 같다.

ICN-CNR회의 대표는 각국에서 두 사람이 오게 되어 있다. 혼자 이 회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생리적인 문제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특히 배탈이라도 나서 응급사상이 생기면 KOREA(나라)가 토의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도 대표는 출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아직 그래도 젊고(?) 그리고 변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망정이지! 하고 감사해했다.

중요보고 토의 및 결의사항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고

1. Anstey회장 보고

1977년 동경총회 이후 ICN의 중점적 사업은 일차건강관리와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복지에 관한 것이라고 종합할 수 있으며, 앞으로 2년 동안도 계속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임을 밝혔다. ICN 본부직원, 이사회의 [작업본담, 3M Fellowship, 회원국] 분계, 재정운영문제를 언급하고 ICN헌장 개정안 그리고 국제와 ICN의 관계, 간호원 사회

복지사업, 1981년도 17차 4년차 총회준비과정, 그리고 간호전문위원회 작업에 관한 경과를 보고하였다.

2. Logan사무총장 보고

사무총장 보고는 32page나 되는 체계적이며 요약된 보고가 ICN헌장에 나타난 ICN의 존재 목적별 분류하여 목적을 위해 그동안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연관지어 볼수 있게 발표하였다.

3. Acott의 간호전문위원회 보고

ICN정관 12조 4항에 규정된대리 유일한 상임위원회인 본 간호전문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 1) 1980년대를 위한 간호원의 정의
- 2) 간호사업의 확대—일차건강관리의 개념
- 3) 새로운 종류의 보건인력 문제
- 4) 간호교육과정 개발 원칙
- 5) 증가된 국가간의 여행에 따른 전염병 전파와 간호원의 역할
- 6) 생명의 기계적 유지에 대한 간호원의 역할과 윤리
- 7) 연구에 있어 인권보호문제

8) 간호원의 집단활동에 대한 ICN출판 및 간행물

9) 지역사회간호에 대한 WHO 전문위원회 보고

10) 나이팅게일 재단 자금운영문제등을 연구 검토했음을 보고하였다. 이 중 몇가지는 완성단계에 있으나 대부분이 초안은 되었으나 1981년까지 더욱 더 연구할 과제로 남아 있다.

토의 및 결의사항

토의안건이 CNR회의 전에 각국에 보내져 온다. 각국 간섭은 이를 받아 심사숙고하여 나라 대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중의를 모은 의견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다. 본회도 기획위원회를 거쳐 중앙이사회에서 중요한 CNR 토의안건이 논의되었다. 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중의를 참작하여 우리나라토서의 개개 안건에 대한 태도표명이 참석자의 중요임무이었다.

토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간의 교환간호원 프로그림

각국의 취업및 각국 간섭의 재정 문제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나 그 뜻이 중요하므로 난관을 이기고 계속 추진해 보도록 결의.

2) ICRC(국제적십자 협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이팅게일 기장 수여자 규정을 더욱 확대, 전상자 간호뿐 아니라 건강유지, 증진 및



ICN-CNR에서 회의자료를 검토하는 김모임 회장

질병예방에 크게 기여한 간호원에 제도 수여되어야 할이 트의되었고 국제적십자사연맹 Miss Robinson 으로부터 적십자간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점을 지적,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고 있음을 밝히며 ICN으로서는 그 결과를 우선 주시 관찰한 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3) 지역별 국제간호의회 기구 조직

이 조직이 주는 장단점을 계속 더 검토하고 ICN 과 각국 간협과 이 지역별 기구와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고 재정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이 문제의결이 가능하므로 1981년도 의제로 남기고 그동안 임시위원회를 조직 상기 문제를 검토하여 1981년 CNR에서 발표할 것을 결의하였다.



ICN-CNR의 트의 및 의결광경

4) ICN 본부 문제

Geneva가 물가가 비싸고 달라가치의 절하로 각국 회비부담이 가중되므로 본부 옮기는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Geneva가 국제기관의 중심지이므로 그대로 Geneva에 두기로 결의하였다.

5) 아동의 권리

1979년이 UN이 어린이 현장을 발표한지 20년이요 ICN이 아동의 해 선정을 찬성하였으므로 각국 간협은 정부와 자원단체와 협동하여 이 현장이 실천되도록 노력할 것파 나아가서 각국 간호협회는

—여하한 종류의 아동학대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존엄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족계획 사업을 증진하고

—아동에게 영양, 주택, 교육 및 건강관리가 고루 배분되도록 하며

—일차건강관리 (질병 및 불구예방, 강조한)가 주어지도록 강화하며

—고아나 버림받은 아동을 위한 특수관리 간호와 입양에 따른 장애를 없애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참여 할것을 결의하였다.

6) 삶의 질

과학기술의 개발이 자연자원의 고갈을 초래하여 인간의 삶의 질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적시하여

인간을 위한 사업이 경제적인 압력으로 인해 바르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불테 각국의 간협은 효과적이고 인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대변할 것을 결의하였다.

7) 간호연구

간호연구없이 전문직업적 발전을 노모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로, ICN이 이를 위한 역할을 연구 검토하여 그 결과를 1981년 CNR에 제출한 후 토의 의결기로 하였다.

8) 임상전문간호원 그룹

간호영역의 세분으로 간호 전문인 그룹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하여 개별단체를 조직하여 간호를 대표한다는 주장이 생기고 있으므로 각국 간호협회는 이 그룹을 산하에 포함하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기로 결의하였다.

9)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복지

이 안전 토의는 이들이 할애되어야 전채회의에서 간호원의 경제, 복지에 관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듣고 그룹으로 나누어져 Workshop 형식으로 심사숙고하였다. 이 안전은 회장 Anstey가 지적했듯이 가장 큰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으로 경하고 1981년 L.A.총회에서 별도 Forum을 갖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ICN 과 특별위원회는 각국 간협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질을 개발하여 정보를 나누기로 하였으며 사회 경제 복지란 어위가 광범위한 내용을 말 하므로 사업의 쫓점을 살리기 위하여 사업명을 "Salar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봉급과 취업조건)으로 구체화하기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다음 회의에 더 논의하기로 하였다.

10) 1981년도 4년차 총회

Symbol(마크)선정

3가지 모형을 미국 간협에서 제출 투표한 결과 세계지도가 들어간 지구형의 마크로 미국과 L.A의 별 두개가 있는 모형이 선정되었다.

11) 1981년도 4년차 총회 주제선정

각국 간협에서 제출한 주제를 이사회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종합 제출하였다.

① Health Care for all: Challenge for Nurses

② Health Prospectives and a New Economic Order

③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Nursing's Challenge.

투표한 결과 ①이 주제로 선정되었다.

12) 1983년도 CNR 일자와 장소 선정

알제리, 브라질,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필리핀, 스위스, 영국 그리고 자마이카의 9개국의 유치 활동이 있었으나 브라질로 선정되었다. 본회 이사회에서도 1983년 CNR의 유치를 결의하였으나 우리가 신청하기 전에 이미 많은 나라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으므로 1985년도 ICN-CNR유치로 기수를

둘러 신청서를 제출키로 하였다.

13) 1985년도 제18차 4년차 정기 총회 및 CNR개최국 선정

이스라엘과 한국만이 신청하였는데 이스라엘은 1983년 CNR신청을 포기하고 1985년 ICN-CNR유치에 전념하기로 전략을 바꾸고 Invitation Kit, 선물 Reception 영화상영 그리고 대사관은 물론 유치를 위한 대표과정으로 Lobby 활동을 하고 있었다. 17차 ICN유치를 위해 노력했다가 미국에 패배하고 올해는 1983년 CNR이나 1985년 ICN-CNR중 어느 것이나 유치하겠다는 집념을 보였다. 한국은 혼자 파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 참석한 회의이기때문에 이런 치열한 경쟁이 있는지 몰랐고 따라서 우리측은 준비가 소홀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스라엘 대표가 "어떻게 혼자 왔느냐"고 묻는 말도 약을 올리는 소리로 들리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유치연설에 이스라엘 보다 우리가 많은 박수를 받고 유치 연설후 투표가 곧 진행됐으면 우리나라가 선정됐을 것으로 생각할 정도였으나 이런 전문직업인의 국제조직속에서도 국제정치의 힘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체험하게 되었다. 1985년도 ICN 총회는 이스라엘이 가져갔다.

그러나 간협이 ICN의 회원국으로 30년이 되었으나 한번도 CNR 회의나 ICN총회를 초청한다고 발언조차 못했던 과거에 비하면 우리 국력성장에 힘을 입어 만방에 우리의 힘을 과시할 수 있었던 첫 기회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장이 있다는데 다들 놀라는 기색이었다. 많은 나라 대표들이 위로차 찾아와 다음에는 한국에서 ICN총회를 하자고 하였다.

1989년 ICN총회유치물 [위한 기초작업을 튼튼히 한 것만은 틀림없다.

14) ICN정관개정

15) 건강에 간호기여도 증진

건강사업에 간호기여도 증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ICN과 각 회원국 간협은 각국 보건부처가 (1) 정부 기구조직에 고위직을 마련 간호행정을 담당하게 하며 (2) 간호계 지도자를 보건정책결정기구에 참여하게 하며, (3) 세계보건기구(WHO) 회의에도 반드시 유능한 간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4) 세계보건기구회의 각국 대표파견시 대표중 간협 대표가 포함되며; (5) 간호원이 자기 직업에 관계된 간호의 실제 교육, 법률 및 연구에 관계된 일을 결정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한 것을 결의하였다.

